

〈共同主題 韓國側 發表〉

韓國 大學入試制度의 現況과 改善方向

黃 禎 奎
(교육학과)

I. 序 論

한국에서 대학입시제도 및 선발방법 만큼 교육계에서나 일반인들에게 예민한 관심과 비판의 대상이 되어온 제도도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학에서 필요로 하는 피교육자를 선발하기 위한 입시제도가 대학내의 교육적 행사로 끝나지 않고 언제나 世論과 사회의 銳角的 관심의 대상으로 부각되는 것은 그만큼 대학입시가 학생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가정, 사회, 그리고 대학 자체의 존립유지에 주는 의의와 비중이 크기 때문이라 짐작된다.

대학입시가 과열해지면서 그것을 위한 개인적 노력, 재화, 시간의 투입도 막대하지만, 이것을 관리하기 위한 사회적, 국가적 재화 및 노력의 투입도 막대하다. 이같이 우리나라에서 대학입시에 대한 관심이 과열되어 왔고, 또한 계속 그러리라는 데 대한 형이상학적 이유는 여러 가지로 들 수 있겠지만 그 형이하학적 이유는 대학입시에서 합격하는 것이 한 개인의 上向的 階層移動을 가장 보장받는 최선의 길, 가장 지름길이라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데 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대학에 들어가는 것, 그리고 대학 중에서도 世評이 좋은 대학이나 학과에 들어가는 것이 출세하고, 대접받고, 돈받고, 잘 살 수 있는 수단이라는 한국인의 뿌리깊은 지위상승에 대한 의식구조와 그 현실의 확인에 있다. 그러기에 대학을, 교육받고, 인격을 도야하며, 자아실현을 위한 기회나 場으로서가 아니라 계층상향이동에 필요한 약속어음을 마련하기 위한 장소로 생각하는 의식이 은연중 모든 행동을 지배하고 사고를 지배한다.

이 논고에서는 ① 한국의 대학 입시제도가 어떤 과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게 되었는가 하는 발전과정을 간략히 살펴보고, ② '94학년도부터 실시하기로 결정된 內申成績(40% 이상 반영)－大學修學能力試驗－大學別 考查로 구성된 입시제도의 구조와 그 특징을 概觀하고, ③ 대학입시제도에 관련하여 고려해 보아야 할 논리를 제기하고 ④ 개선의 방향을 시사하는 형태로

제시한다.

II. 韓國 大學入試制度의 變遷過程

한국의 대학입시제도 변천과정을 필자의 개인적 견해를 가하거나 특수한 분석의 틀을 고려하지 않고, 변천되어 온 과정을 시대별로 나누어 사실적, 객관적으로 기술한다(朴道淳 외, 1989).

1. 대학별 단독시험시기 (1945-1953)

1945-1953년은 대학별 단독시험제로 대학이 주체적, 자율적으로 대학교육 적격자를 선발한 시기였다. 해방이후 1948년 정부가 수립되자 대학입학시험에 관련된 사항은 대학당국에 일임하는 방침을 세우는 한편, 대학당국끼리 협정형식으로 시험과목, 시험시기 등을 정하도록 하였다. 당시 대학교육수요의 부족으로 정원이 미달되어 병역상의 징집, 소집, 유보의 특혜를 주게 되었으나 이것이 대학에 부정입학의 문제를 유발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결국 부정입학 등으로 대학입학시험의 자율성이 제대로 행사되지 못하여 대학입학시험의 공공성을 강조하는 방향에서 이 제도개선이 이루어졌다.

대학입학 전형방법은 대학별로 출제한 필기고사 형태의 선발시험에서 얻은 총점에 따라 입학사정을 하였고, 시험과목은 필수과목 4과목(국어, 영어, 수학, 사회)과 선택과목 1과목 이상(대개 실업과목에 치중함)을 부과하였다.

2. 대학입학국가연합고사, 본고사 병행시기 (1954)

1954년 대학입학 국가연합고사를 도입하여 대학별 고사와 병행 실시하였다. 즉, 대학교육 적격자에게 입학자격을 부여하여 대학의 권위와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대학입학시험 제도의 공공성을 살리기 위하여 대학간 협의결과로 국가연합고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연합고사와 본고사가 수험생에게 이중부담을 주고, 여학생과 제대자에게 특혜를 주었다는 등의 이유로 효력을 보지 못하고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이같은 대학입시제도가 도입된 배경은 첫째, 대학생의 징집, 소집 보류특전으로 부정입학—병역기피수단으로 대학을 이용했다는 것, 둘째, 대학의 재정확보책으로 정원초과모집의 현상이 빚어져 대학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었다.

전형방법은 대학입학 국가연합고사(자격고사) 합격후 대학별 시험(본고사)의 총점에 따라 입학사정을 하였다. 시험과목은 국가연합고사에서는 필수과목으로 국어, 영어, 수학, 사회생활과 선택과목으로 과학 혹은 실업을 택하게 했으며, 대학별 고사에서는 필수과목으로 국어, 영어, 수학을 선택과목으로 1과목은 학생이 선택하게 하였다.

3. 대학별 단독시험시기 (1955 - 1961)

1955-1961년에는 국가연합고사가 실효성없이 폐기되고 다시 대학별 유시험, 무시험이 병행되었다. 즉 고등학교 교육을 정상화하고 대학교육 적격자를 선발한다는 원칙 아래 대학별 무시험 전형을 실시하거나 입학시험을 대학 단독으로 실시하는 다양한 대학입학시험 양상이 전개되었다. 특히 무시험 전형에서 최초로 내신제가 활용되어 전인적 평가를 중시하고 고등학교 교육정상화에 기여하였지만 대학간의 격차심화와 대학교육의 질저하 문제가 제기되었다.

입학사정 방법은 다양하였다. ① 대학별 선발시험에 따라 입학사정을 하는 대학, ② 고교 내신 성적(1958년 이후)을 기초로 정원의 10%는 내신성적으로 선발하고 정원의 90%는 대학별고사(70%) + 고교내신성적(30%)를 반영하는 대학, ③ 상관회귀방법에 의한 추정 방법에 따라 사정(연대)을 다양화하였다.

시험과목은 1955-1957연도는 필수과목(4과목이상)으로 국어, 영어, 사회, 수학, 과학을 그리고 대학에서 지정하는 선택과목 1과목을 부과하였으나 1958-1961년 사이에는 필수과목으로만 전형하고 2과목은 매년 변경실시하였다.

4. 대학입학자격 국가고시시기 (1962-1963)

1962년에는 대학의 본고사를 자격고사 겸 선발고사의 성격을 띤 '대학입학자격 국가고사'로 전환하였다. 그리고 1963년에는 이 국가고사를 자격고사로만 돌리고 대학별 본고사로 학생을 선발하게 하였다.

이러한 제도 변화를 초래한 상황배경은 ① 5.16이후 고등교육기관의 정비와 질적향상을 위해 부정입학자 방지, ② 수학능력 적격자 선발, ③ 고교교육의 정상화, ④ 인문중시 풍토의 타파와 실업교육 진흥, ⑤ 지방대학 육성 등을 위한 목적이 배경에 깔려 있었다. 그러나 국가고사의 근본목적이 부정입학과 무자격시험의 입학을 막고 대학의 질을 향상시키겠다는 의도였으나 오히려 대학입학시험의 주체가 되어야 할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문제를 야기시키게 되었다.

전형방법은 1962년도에는 대학입학자격 국가고사와 대학별 실기고사(체능고사)로 했으며

1963년에는 대학입학자격 국가고사와 대학별 선발시험으로 입학생을 사정하였다. 특징은 특별전형으로 실업 동일계 대학진학자(학교장 추천을 받은자)를 대학정원의 30% 선발하였고, 예체능계는 무시험 서류 전형으로, 여자는 사범계 및 실업계 진학시 혜택을 부여하였다.

시험과목은 1962년도에는 필수과목 6개(국어I, 사회, 수학I, 과학, 영어, 실업(가정))이었으며 계열별로 1개의 선택과목을 택하게 하였다. 1963년도에는 필수과목 6개만으로 실시하였다.

5. 대학별 단독시험시기 (1964-1968)

1964-1968년에는 대학입학시험에 있어서 대학의 자율성을 신장시키기 위하여 대학별 단독 시험제로 전환하게 되었다. 즉, 정부에서는 대학입학시험의 공공성 차원에서 최소한의 지침을 마련하고 대학이 자율적으로 대학교육 적격자를 선발하도록 하였다.

전형방법은 각 대학별로 주관식, 객관식을 혼용한 필답고사 형태가 주류를 이루었으나, 대학에 따라서는 적성검사 및 내신성적을 반영하는 방법도 채택하였다.

그러나 대학별 단독시험방법은 입시관리의 불철저와 일부 사립대학의 정원 초과모집으로 인하여 대학교육의 질이 저하되고, 일류대학 집중지원현상이 나타나 대학별격차가 더욱 심화됨으로 다시 대학입학시험의 공공성 문제가 제기되기에 이르렀다. 더욱이 각 대학이 다투어 입학과목을 축소(3-4개 과목)함으로써 고교교육의 비정상화를 가중시키는 결과를 빚었다.

6. 대학입학예비고사, 본고사 병행시기 (1969-1980)

1969-1980년에는 대학교육의 적격자를 선발함으로써 대학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동시에 고등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실시하는 '대학입학 예비고사' (1969. 대학입학 예비고사령 공포)와 대학별로 실시하는 본고사가 복합적으로 시행되었다. 이 기간동안 대학입학시험제도는 대체로 대학에 학생선발의 자율권을 부여하면서, 대학입학시험의 자율성에서 야기되는 부정적인 요소를 제거하기 위하여 대학입학예비고사를 통하여 국가가 적정 수준으로 개입함으로써 대학입학시험의 공공성도 보장하였다.

전형방법은 대학입학예비고사 성적과 고교내신성적(1973년도 이후) 그리고 대학별 본고사 성적으로 전형하였다. 대학입학예비고사는 초기에는 예비고사 합격자에 한해 대학별 본고사에 응시자격을 주는 자격고사 형태였으나 후기에는 대학진학의 예비시험으로 전환되었다.

대학입학예비고사는 고교교육과정을 전부 망라하는 四肢選多型 문항형태의 시험이었으며, 대학별 본고사는 대학마다 다양하였다.

그러나 이 제도도 예비고사와 대학본고사 실시에 따른 학생의 시험준비의 이중부담, 시험준비 위주의 고교교육, 그리고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와 고등학교 평준화정책의 시행 등 중등교육이 보편화됨에 따라 대학교육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였으나 대학정원은 크게 늘어나지 않아 과열입시 경쟁이 유발되고, 이로 인하여 대학입학시험의 공공성문제가 크게 대두되었다.

7. 대학입학예비고사, 고교내신제 병행시기 (1981)

1979년부터 대학입학 예비고사의 적용대상은 전문대학까지 포함되자 대학정원의 급격한 팽창을 가져와 대학입학예비고사는 총응시자의 약 90%가 합격하기에 이르게 되어 합격선은 유명무실하게 되었다. 또한 과열과외, 예비고사와 본고사의 이중부담, 고교생활지도의 문제점 등이 생겨 일부에서 본고사 폐지 및 대학입학예비고사의 합격선 폐지를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1980년 7.30 교육개혁조치가 취하여지게 되었다. 이 조치는 고교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 대입전형방법의 개선을 목표로 하여 당시 대학입학을 목표로 벌여졌던 과열과외 현상을 척결하기 위하여 대학입학시험의 전형방법으로 각 대학별로 실시하던 본고사를 없애고 고교내신성적과 예비고사 성적에 의하여 신입생을 선발하게 하고 있다. 예비고사의 합격선은 1982학년도에 가서 폐지되었다. 1981학년도 신입생선발은 대학입학 예비고사 성적(50%이상)과 고교내신성적(20%이상)만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이 학년도에서는 본고사폐지로 격심한 혼란이 나타났으며 정원미달과 과열경쟁에 의한 탈락과 같은 여러가지 기현상들이 일어났다.

8. 대학입학학력고사, 고교내신 병행시기 (1982 1985)

이 시기에서는 고등학교 내신성적 반영비율의 확대, 대학입학예비고사를 대학입학 학력고사로 명칭을 변경하고 합격선을 폐지, 그리고 1981학년도 입시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을 보완하는 것 등을 특징으로 한다. 특징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보면, ① 대학입학 학력고사성적 50%이상과 고교내신성적 30% 이상에 의하여 신입생 선발, ② 합격선의 폐지, ③ 실업계 동계진학, ④ 산업체근로자에 대한 특혜조치는 종전과 같이 존속, 그리고 ⑤ 대학입학학력고사 문제와 정답의 공개 등을 들 수 있다.

전형방법은 전형주자료로서 ① 대학입학 학력고사, ② 고교내신성적, ③ 실기고사(예 체능계)를, 전형보조자료로 면접 및 신체검사를 활용하였다.

대학입학 학력고사는 1982-1983년도에는 14개 교과목, 1984년도에는 15개 교과목, 1985년도에는 인문계 16개, 자연계 15개 과목을 선다형으로 이해력 및 적용력을 측정하도록 출제하였다.

내신성적은 1982년도에는 고교 2학년 및 3학년 성적에 의해 산출하였으나 1983년 이후에는 고교 1, 2, 3학년 성적에 의해 산출하였다.

이 제도 채택이후 ① 고등정신력 측정의 미흡 ② 내신성적에 대한 불신증가 ③ 눈치경쟁 유발, ④ 적성교육 무시, ⑤ 졸업정원제로 인한 강제 탈락 문제 등이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었다.

9. 대학입학학력고사, 고교내신 및 논술고사 병행시기 (1986~1987)

대학입학 학력고사 성적과 내신성적의 기계적 합산에 따라 얻는 총점만에 의한 전형제도는 대학의 학생선발권 위축, '눈치작전', '배짱지원' 등의 비교육적 현상과 같은 여러가지 문제점들을 야기시키게 되었다. 동시에 대학입학 학력고사는 객관식 일변도의 출제방법 때문에 암기력만을 평가할 뿐 고차원의 정신능력을 평가하지 못한다는 비판도 상당히 강력하게 제기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사회적 비판을 수렴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대학입학 학력고사, 고교내신성적 이외에 "고차원의 사고능력을 평가하는 탈교과적 범교과적 성격의 논술식 시험"을 대학별 고사로 출제하도록 하였다.

이 시기에 특별한 변화는 대학입학 학력고사의 교과목이 1987년에 9개과목(필수 5, 선택 4)으로 축소되었고, 선택과목 중 제 2외국어와 실업을 통합하였다는 점이다. 새로이 도입된 논술고사는 그 기능이 미흡하다는 여론에 의해 2년으로 단명으로 그쳤다.

10. 대학입학학력고사, 내신성적 및 면접 병행시기 (1988~)

1988학년도부터 시행된 대학입학 시험제도 개선의 기본 골격은 크게 4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로 입시성적의 평가는 대학입학학력고사 성적, 고교내신성적, 면접고사 성적의 3요소를 반영하도록 하며 2년째 시행되어온 대학별 논술고사는 폐지한다. 특히 고교내신성적은 30% 이상을 의무적으로 반영해야 하며 기타 요소의 반영률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둘째로 대학지원 방법은 선지원 후시험으로 한다. 셋째로 대입학력고사의 출제는 중앙교육평가원이 하며 고사과목은 현재와 같이 9과목으로 하되, 30% 내외에서 주관식 출제를 한다. 선택과목은 지원자가 대학지원시 선택하지만 실업 및 제 2외국어 과목지정은 대학에서 한다. 넷째로 고사의 실시, 채점, 결과처리 등은 각 대학이 책임관리하되 10% 이내에서 과목별 가중치를 주는 것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대학입시제도 개선책 중에서도 가장 관심을 불러 일으킨 요소는 선지원 후시험이라는 지원방식의 변경과 주관식 문제의 출제라는 학력검사의 성격 변화라고 볼 수 있다. 그 외에 면접고사 성적을 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 점이라든가, 실업 및 제 2외국어교과 지정을 대학이

할 수 있도록 한 점, 그리고 과목별 가중치를 줄 수 있도록 한 점 등은 새로운 요소라고 볼 수 있다.

전형방법은 전형자료로는 ① 대학입학학력고사, ② 고교내신성적, ③ 면접고사, ④ 실기시험(예 체능계)을 주된 전형자료로 하고, 신체검사결과를 보조자료로 이용하고 있고 입학 사정 방법은 선지원 후시험제를 실시하였으며, 일반제는 [학력고사 성적 + 내신성적(30%이상 의 무적으로 반영) + 면접고사 성적] 으로 하며 예.체능계는 여기에 실기고사를 추가한다.

대학입학학력고사의 시험과목은 9개(필수5, 선택4)이며, 객관식 문항 70%와 주관식 문항 30%의 비율로 출제하되, 학력고사의 출제 및 인쇄는 중앙교육 평가원에서 담당하고 고사의 실시 채점 사정 발표는 각 대학별로 시행하도록 하였다.

이 제도는 선지원·후시험 방법을 채택함으로써 접수창구의 혼란을 해결하였고, 비교적 학생들의 적성에 따른 소신지원을 가능케 했다는 긍정적 측면이 있는 반면, 내신성적 평가제의 문제, 대학별 학력고사 채점 사정에서의 부정입학 문제, 학력고사 3회 출제(전기, 후기, 전문대) 등에 따른 문제점이 노출되었다.

그러나 이 제도는 1993학년도를 마지막으로 소멸될 상황이며 1994학년도 부터는 새로운 대학입시제도가 채택될 전망이다.

지금까지 제시한 대학입시제도의 변천을 표로 제시한 것을 부록에 참고자료로 제시하였다.

III. '94 학년도 大學入試制度의 概要

1. 배경

위에서 살펴본 대학입시 제도의 변천과정을 보면 크게 보아 1980년의 소위 '7.30 교육개혁'에 따라 1981학년도부터 시행된 새로운 입시제도를 그 근간으로 하고 있다. 그 이후 몇차례 부분적인 수정과 보완이 있었으나, 대학입학 학력고사와 고등학교 내신성적을 주 전형자료로 하는 기본 골격은 그대로 유지되어오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 시행 10년이 가까워 오면서 현행입시제도에 대한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대학입시제도가 사회적 문제로까지 대두되는 원인이나 요인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지만 그 핵심을 이루는 것은 그 동안의 입시제도가 교육의 본질적 차원에서 다루어졌다고 보다 교육외적 요인에 의하여 결정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이다. 특히 대학입시의 주체가 되어야 할 대학은 학생선발의 권한과 자율성을 크게 제한당한 상태였고, 고등학교 교육은 교육의 본질적

가치를 상실한 채 대학입시에 종속화되었고, 수험생이나 학부모는 입시에 따르는 과중한 정신적, 물질적 부담의 희생물이 되었다.

2. 교육개혁심의회 대학입시제도 구상골격

이같은 상황 속에서 1987년 '교육개혁심의회'는 최종보고서II '教育改革綜合構想' 속에서 대학입시제도에 대한 본격적인 구상을 제시하면서 1990년대 초반까지 객관식 중심의 학력고사 부분은 '大學教育適性試驗'으로 발전시키고, 주관식 중심의 학력고사 부분은 '대학별 평가'로 발전시키며, 고교내신성적은 현행 비율을 유지함을 원칙으로 하되 여건 변화에 따라 조정하고, 반영되는 내용을 확대하여 행동발달상황, 특별활동도 내신성적에 반영할 수 있게 한다고 제안하였다.

3. '94 학년도 대학입시제도

'94 학년도에 시행될 대학입시제도는 교육부의 연구위촉을 받은 대학입시제도 연구위원회(박도순 등)가 연구한 결과를 토대로 여론수렴 및 추수연구를 토대로 약간의 수정을 가한 후 1991년 3월에 '대학입학시험제도 개선안'(교육부)으로 발표되었다. 현재 채택된 '94 학년도 입시제도의 기본 골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전제조건들

(1) 개선안의 전제조건

고등학교 교육의 정상화 기여
대학의 자율성과 다양성 신장

(2) 기본 골격 선정조건

- 대학교육의 적격자 선발
- 連繫性의 원칙 —————> 내신성적(고등학교)
- 公共性의 원칙 —————> 대학수학능력시험(국가)
- 自律性(多樣性)의 원칙 —————> 대학별고사(대학)

2) 改善案의 基本構造—大學入試는 原則的으로 大學自律에 一任함—

개선안의 기본구조

*학생선발의 기본자료

고등학교 내신성적 대학수학능력시험성적 대학별고사성적
(필수사항) (선택적사항) (선택적사항)

◦ 반드시 반영해야 할 사항

고등학교 내신성적은 필수적으로 40%이상 반영

◦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

-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채택여부 · 반영비율 · 반영방법
- 대학별고사의 실시여부 · 반영비율

◦ 학생이 선택할 사항

대학수학능력시험은 학생이 희망에 따라 1회 또는 2회 선택적으로 응시 할 수 있으며, 학생은 지원하는 대학이 요구할 경우 그 중 좋은 성적을 대학에 제출

◦ 적용시기 : 94학년도 신입생 선발시 부터 시행

(전문대학도 희망시에는 학생선발자료로 사용할 수 있음)

*전형자료별 반영비율 대학별고사 과목은 가능한한 새 제도 시행 2년전에 각 대학별로 발표

3) 학생선발 유형

대학이 선택할 수 있는 입시유형

- 제 1 유형:고등학교 내신성적만으로 선발
- 제 2 유형:고등학교 내신성적 + 대학수학능력시험성적
- 제 3 유형:고등학교 내신성적 + 대학별고사성적
- 제 4 유형:고등학교 내신성적 + 대학수학능력시험성적 + 대학별고사성적

4) 細部 改善內容

(1) 고등학교 내신성적

㉞ 개선목적

- 내신성적의 실질적 반영비율을 높혀 교육과정의 파행적 운영을 예방하고
- 고등학교 교육의 자주성을 보장함

㉟ 실질반영율의 상향조정

- 반영비율 조정:현행 30% → 40%
- 내신등급 조정:현행 10등급 → 15등급
- 실질반영율 조정:현행 4.9% → 10% 수준

㉔ 평가영역과 반영방법의 개선

- 평가영역
현행 『교과성적』과 『출석성적』 이외에 『특별활동 행동발달 교내외 봉사활동 성적』
까지 평가하여 반영함
- 반영방법
현행:교과성적 90% + 출석성적 10%
개선:교과성적 80% + 출석성적 10% +
『특별활동·행동발달·교내외 봉사활동 성적』 10%

(2) 대학수학능력시험

㉕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개념과 시행의 필요성

- 개념 : 통합교과적이고 탈교과서적으로 고등정신능력을 측정
- 필요성
 - 대학교육에 필요한 수학능력을 측정 - 대학교육적격자 선발
 - 암기위주 교육에서 탈피 - 고교교육에 미치는 입시영향 최소화
 - 학생선발의 공공성과 객관성이 높은 자료 제공

㉖ 시험영역

—대학교육수학에 필요한 언어, 수리, 탐구, 외국어(영어) 영역—

- 언어영역
 - 사실적 추론적 비판적 언어능력을 측정
 - 국어교과 뿐만 아니라 사회, 과학 등 다양한 교과영역에서 출제
- 수리, 탐구영역
 - 주어진 자료에 원리와 방법을 적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등 수리, 탐구 능력을 측정
 - 수학교과 뿐만 아니라 사회, 과학 등 다양한 교과영역에서 출제
- 외국어(영어) 영역
 - 사실적 추론적 비판적 영어능력을 측정
 - 영어가 대학교육에 필수적이라는 현실을 반영한 학력고사임.

㉔ 출제 및 시험관리(국가관리)

- 출제 및 채점: 중앙교육평가원
- 시행 및 관리: 중앙교육평가원, 시·도교육청
- 출제 형식: 객관식 출제

㉕ 시험 실시 회수

- 학생은 희망에 따라 3학년 재학 중에 1회 또는 2회 응시할 수 있음
- 학생은 그 중에서 좋은 성적을 대학에 제출할 수 있음
- 앞으로 국가의 시험관리능력과 출제 문항의 축적 등이 충분한 수준에 이르면 시험 회수를 더 늘릴 수 있음.

㉖ 고득점자의 특별전형

- 고득점자의 재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 희망하는 대학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고득점자를 일정 범위 내에서 특별
- 전형으로 선발할 수 있음

㉗ 영역별 가중치 적용

- 대학의 특성화 다양화를 기하기 위하여 계열별 학과별로 특정영역의 성적에 가중치를 부여할 수 있음.

(3) 대학별 고사

㉘ 고사의 성격과 시행의 필요성

- 성격: 대학의 특성 또는 계열별 학과별 특성상 별도의 수능능력을 측정할 필요가 있을 때 대학별로 시행하는 고사임
- 필요성: 대학의 학생 선발권 확대
- 계열별 학과별 특수성 반영

㉙ 시험과목과 출제내용

- 시험과목
 - 계열별 학과별 특성을 고려하여 3 과목 이내에서 대학이 결정
- 출제내용
 - 고등학교 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특별히 고려해야 함
 -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을 준거로 하여 사고력 판단력
 - 탐구능력등 고등정신 능력을 주관식 위주로 측정

㉚ 실기고사 및 실험고사

- 실기고사:음악·미술·체육 등 실기가 중요시되는 학과에서 실시
- 실험고사:과학 등 실험 실습이 중요시되는 학과에서 실시할 수 있음
- 고사의 종목과 시행방법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 시행하되 실기고사의 경우 91.2.28자 교육부의 발표(예술계 입시제도개선)에 따라야 함

㉔ 면접·구술고사·신체검사

- 기본원칙:대학이 자율적 결정·시행
- 실시 활용방법
 - 신체검사는 대학교육에 지장이 없는 한 불합격 자료로 활용할 수 없음
 - 면접·구술고사는 합격·불합격의 자료로만 활용하거나 총점의 10% 내에서 입시사정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 사범계대학(사범계학과 포함)은 면접(10%이내), 교직적성 및 인성검사(10%이내)를 필수적으로 반영함.

(4) 특별전형

㉕ 특기자 영역 확대 및 학력기준 설정

- 현행 예 체능계 특기자 이외에 문학·어학·수학·과학 등 특수재능 보유자까지 확대
- 모든 특기자는 대학별로 정하는 학력기준에 도달하여야 함
- 특기자 선정기준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입학인원은 정원내로 함

㉖ 교포 및 외교관등 자녀의 정원의 입학

입학인원은 정원외로 하되 학년별 입학인원의 2%범위 내로 함.

㉗ 산업체 근무자 특별전형

고등학교 졸업후 2년 이상 산업체에 근무하는 자는 야간학과 정원의 50%이상을(현행 20%이내) 특별전형으로 선발할 수 있음

IV. 고려되어야 할 論理

우리나라의 大學入試制度가 1969년에 '대학입학 예비고사'라는 국가고사 제도가 도입되는 것을 시발점으로 해서, 그 이후 입시 제도가 여러가지 형태의 구조적 골격, 내용과 방법에 변천을 겪으면서 오늘에 이르게 된 배경에는 그 나름으로 그 시기시기마다 발생했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교육적 차원의 고려, 社會的 문제의 수렴이라는 어려운 상황 타개를 위한 노력

의 표현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大學入試는 어차피 고교 졸업생들을 모두 대학에 입학시킬 수 없는 조건 속에서 누군가를 선택하고, 누군가는 떨어뜨려야 하는 갈등 기능을 大前題로 하고 있다. 대학입시는 대학에서 수학하는 데 요구되는 능력과 자질을 평가하여 입학 적격자를 가려내는 '選拔의 機能'과 동시에 교육현장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하도록 지원하는 '教育的 機能'을 수행해야 한다는 이중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選拔의 機能은 학생의 능력이나 자질을 가능한한 타당하고 예리하게 변별함으로써 선발에서의 예측능력, 예측효과를 극대화하려는 것이 최대의 標的인 반면, 教育的 機能은 모든 고교생이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요구하는 교육목적, 내용을 충실히 성취하도록 하려는 것을 최대의 표적으로 삼는다. 따라서 변별, 차별, 분화, 등급화를 최우선의 목표로 삼는 선발기능과 교육목표의 달성, 이에 따른 학생 능력의 동질화, 등질화를 최우선의 과제로 삼는 교육적 기능 사이에는 언제나 잠재적 갈등과 긴장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만약 이 두 가지 기능을 동시에 극대화시킬 수 있는 입시정책이 있다면 그것은 神話와 現實을 합치시키는 방법이 될 것이다.

大學入試制度는 이 두 가지 기능 사이에 적절한 수준의 긴장된 조화를 이루려는 제도적 표현으로 이해되어야 하며, 그동안 이를 위해 대입학력고사, 내신제도, 대학의 독자적 선발 자율권이라는 세 가지의 제도적 장치가 함께 존치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大入學力考查가 국민적 이해와 관심의 제도적 표현이라면, 內申制度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이라는 교육적 기능을 발효시킨 제도적 표현이며, 大學의 독자적 선택과목 결정이나 加重値 적용, 채점과 査定 方法의 결정 등은 대학의 選拔 自律權을 발효시킨 제도적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 세 가지 제도적 표현은 동시에 우리 사회가 지향하고자 하는 사회적 가치를 그 밑에 깔고 있다고 해석된다. 大入學力考查는 학생 각자가 자기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게 함으로써 동일한 尺度위에서 그 능력, 업적, 성취, 성적의 순위를 결정하려는 '自由'의 개념이 그 근간이 되어 있고, 이에 반해서 內申制度는 학생이 어느 지역에서 수학했건, 어느 학교에서 수학했건 그러한 歸屬變數에 관계없이 동일한 준거 위에서 같은 評價를 부여하려는 '平等'의 개념을 실현하려는 제도적 표현이며, 大學의 독자적 채점, 사정제도의 도입은 대학이 마땅히 가져야 할 獨立性和 自律性を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다. 기실 이 세 가지 理念的 가치는 어느 한 쪽을 강조하면 다른 한 쪽은 위축되는 逆函數의 관계를 갖는 성질이라는 데 그 조화점을 찾기 힘든 원인이 도사리고 있다고 판단된다. 특히 이 중에서도 대학의 自律權 獨立權이 대학 입시 제도에서 경시되거나 배제되어온 경향이 짙다는 데 대한 대학인의 共感帶 의식이 깊었고, 그러기 때문에 언제나 대학 입시 제도에 관한한 대학인의 저항과

거부감을 촉발했던 것도 사실이다.

V. 무엇을 노려야 하는가: 改善의 方向

대학입시제도가 근본적으로 변화되고 개선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는 곳곳에서 들려온다. 그러나 정작 무엇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할 것인가 라는 논의에 초점을 맞추면 그 의견은 각양각색일 뿐 아니라 상당한 부분의 의견은 전혀 실현가능성이 없거나 아니면 극단적인 의견인 경우도 많다.

대학입시제도에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되고 있는 논의를 보면 교육이 지향해야 할 순수한 원리에 입각하여 입시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비교적 원리론적 시각과 입시 제도를 사회 제도의 일환으로 보고 현실적인 제반조건을 고려한 실현가능한 대안선택에 비중을 두는 시각이 존재하고 있는 듯하다.

입시제도의 개선은 교육적 이론에만 집착하여 이루어질 수도 없고 또 그렇게 되어서도 안되지만 또한 현실의 조건이나 사회 여론에 의거하여 이루어져서도 안된다고 본다. 이 두가지 시각이 한 쪽에서는 이상과 또 한쪽에서는 현실을 중시하면서 적절히 긴장된 조화를 유지하는 것이 최선의 해결책이라고 본다. 이러한 시각에서 현행 대학입시제도는 다음의 세가지 문제를 고려하는 방향에서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대학의 자율성 신장, 사회정의의 실현, 선발방법의 합리화 등의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大學의 自律性을 伸張하는 방향에서 개선책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현행의 대학입시제도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의 하나는 각 대학이 당해 대학에서 필요로 하는 학생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대학이 주체적 역할, 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제도적 장치와 그에 대한 뿌리 깊은 저항감을 들 수 있다.

어떤 형태의 조직체이건 그 조직체를 유지, 발전시키고, 그 조직체의 생존과 필수적으로 직결되게 마련인 요구의 하나가 그 조직체에 필요한 인적 자원을 선발, 훈련, 배치하는 일이다. 대학이라는 조직체도 이 예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더욱이 자유와 민주의 개념을 근간으로 하고 있는 개방사회, 자유사회, 경쟁사회에서는 이러한 요구가 조직체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따라 실행되어야 한다는 원칙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조직체의 생존, 유지, 발전은 기대할 수 없다. 이러한 원리는 정치 집단, 경제 활동을 위한 기업체에도 적용되어야 하지만, 대학이라는 조직체에도 마땅히 적용되어야 할 원칙이다.

둘째, 대학에서 신입생을 선발하는 과정이 社會正義의 實現을 최대한으로 실현하려는 방향

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사회정의의 실현이라는 문제가 제도적으로 어떻게 표현되어야 마땅한 것인가를 명확히 제시하기는 어렵다. 로울스(John Rawls)가 제안하는 정의론의 핵심적인 사상인 配分的 正義는 각자가 자신의 '應分の 몫(deserts)'을 누리는 상태를 말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나 제도는 이상사회가 지녀야 할 최소한의 필요조건을 충족시키는 상태를 지칭한다. 만약 한 사회의 구성원이 모두 철저히거나 철저히거나 이기적인 경우, 이같은 배분적 정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한 사회가 개인이 원하는 것을 고루 가질 수 있을 정도로 완전히 풍요하거나, 아무 것도 가질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결핍되어 있다면 이 또한 배분적 정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이것은 바로 '대학 입시'라는 교육 제도, 사회적 상황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대학 입시 제도의 선발 과정이 전통적으로 중요시 했던 準據는 결과에 치우쳐 있었다. 대표적인 것이 학업 성취의 總決算의 指標로서 학력고사 성적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 기준은 그 밑에 능력과 노력이라는 두가지 요소가 복합되어 있다. 능력이라는 개념은 대개의 경우 이미 주어진 조건이거나 적어도 그 배경에는 가정적, 사회적 불공정의 집약체로서 형성된 요소가 도사리고 있다. 또한 노력이라는 기준 역시 극히 주관적일 뿐 아니라 이 또한 사회적 불공정의 결과가 반영되어 있을 가능성이 많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 못지않게 과정과 절차에서의 정의를 정의 실현의 규범적 준거로 함께 채택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내신제도는 이같은 의미에서 사회 정의 실현의 한가지 수단이며,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시하는 정의 실현의 규범으로 채택되어야 마땅하다. 각 학생이 어차피 피할 도리가 없는 지역, 학교, 성별에 관계없이 그에 상응하는 평가를 해주려는 노력은 이미 외국의 대학 입시에서도 '추천서'라는 것이 얼마나 큰 비중을 갖고 있는가를 보면 명백해 진다. 그러나 우리의 내신제도는 그 제도 자체에 문제점이 있기보다 그것을 표현하는 방법에 문제가 있고, 이 점은 동시에 개선되어야 할 점으로 지적해야 할 것이다.

셋째, 選拔方法 및 過程의 合理化를 시도해야 한다. '94년도 대학 입시제도에서 채택하기로 되어 있는 대학수학능력시험, 내신제도, 대학별 고사, 지원방법 등에서 아직도 합리성이라는 기준에 비추어 보면, 결함이 많아 보인다. 예컨대 대학수학능력 시험의 타당성과 신뢰성, 내신성적 산출의 합리성, 대학별 고사의 타당성과 신뢰성 등에 대한 문제는 다시 한번 재검토되어야 한다.

위에 제시한 세 가지 준거를 동시에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이상적인 대학입시제도가 가능할지는 의문이다. 만약 그것이 가능하다면 그것은 신화의 현실화라고 말해도 무방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 세 가지 준거는 조화 속에 융축시킬 수 있는 속성이기보다 서로 갈등을 빚는

요소들이기 때문에 한쪽의 준거를 극대화시키면 다른 한 쪽의 준거는 극소화되거나 위축되기 마련이다. 그러나 대학입시제도의 실현은 실제로 이 세 가지 준거의 '열린 대화'를 통해 성취되어야 하는 것이 현실적 요구이기 때문에 이러한 조건을 최대한 수렴하는 방향에서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해 본다.

1. '94학년도 대학입시제도의 기본골격

'94학년도 대학입시제도의 기본골격은 ① 고교 내신성적 40% 이상 반영(필수사항) ② 대학수학능력시험 ③ 대학별고사 성적(제열별, 학과별 특성을 고려한 3과목 이내)의 세가지 査定準據에 의한다는 조건 속에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전체적 구조로 보면 비교적 국가, 대학, 고등학교의 현실적 요구가 적절히 긴장된 조화를 이루고 있는 제도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대학의 학생선발에서의 自律性 신장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고교 내신성적의 반영비를 결정과 의무적 반영은 劃一性의 강요로 해석할 가능성이 많다. 각 대학에서 이 세 가지 査定準據를 어떻게 반영하며, 어느 정도 반영하느냐는 것은 완전히 대학의 독자적 의사 결정에 맡기도록 해야 할 것이다. 어느 대학에서는 이 세 가지 고사의 결과를 모두 적정한 비율로 반영할 수도 있을 것이며, 또 어느 대학에서는 본고사의 성적 결과만으로 학생을 선발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 다른 대학에서는 학력고사 성적과 본고사만의 배분에 의해 학생을 선발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제도가 갖는 특징은 대학이 학생을 선발하는 경우에 필요로 하는 가장 타당하고 신뢰스러운 정보를 모두 제공한다는 데 있으며, 이같이 주어지는 정보를 어떻게 또 얼마나 학생 선발에 반영하느냐는 것은 전적으로 대학의 자율적 결정에 맡기는 입장이다.

이러한 제도가 채택되면 각 대학마다 다양한 선발 방식이 채택되어 표면적으로는 혼란스러워 보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劃一性보다는 多樣性이 민주사회, 개방사회의 특징이라는 것을 수락한다면 이는 권장되어야 할 현상이지 통제되어야 할 현상은 아니라고 본다. 또한 이러한 제도는 결국 대학 사이에 선의의 경쟁 의식을 조성하고, 그것이 곧 대학 발전과 대학의 개성을 신장시키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그동안 대학은 입학에서 졸업에 이르기까지 정부의 획일적 제도의 우산 아래에서 키 큰 대학도 키 작은 대학도 존재하지 않는 형태로 발전되어 왔고, 그러한 결과로 모두가 개성없는 대학으로 발전되어 온 것 같다. 이같은 현상은 비단 대학입시제도나 졸업 제도만에 국한된 현상은 아니며, 좀 더 넓게는 대학 운영 전반에 걸쳐 퍼져 있는 他律의 支配原則 때문에 파생된 문제로 보여진다.

2. 大學修學能力試驗

대학수학능력시험은 학생선발에서 公共性和 客觀性이 높은 전형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統合教科的' 소재를 대상으로 고등정신능력을 측정하는 발전된 학력고사' 라고 개념을 규정하고 있다.

이 시험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아직도 명확한 개념규정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혹자는 미국의 SAT와 같은 학업적성검사로 이해하고 있는가 하면, 혹자는 ACT와 같은 학력고사로 이해하고 있기도 하고, 또 혹자는 SAT와 ACT의 중간쯤에 해당하는 성격의 검사로 이해하고 있기도 하다.

필자는 이 논고를 통해 비교적 자유로운 입장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은 발전된 학력고사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SAT 보다는 ACT에 가까운 시험으로, 그 개념을 분명히 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개념규정에서 혼란을 초래했던 '統合教科的' 소재' 라는 개념도 반드시 제한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고등정신능력 중심, 사고력 중심의 정신능력을 측정한다는 개념은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은 고등학교 현장교육을 보다 質 높은 교육, 교육과정의 본질에 충실한 수업으로 이끌기 위한 교육적 기능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관련하여 현재 언어영역, 수리.탐구영역, 외국어(영어)의 3개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는 영역도 언어영역, 수리영역, 사회탐구영역, 과학탐구영역, 영어영역의 5개로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현재 3개 영역구성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영역이 수리.탐구영역이다. 이 속에는 '한 지붕 세 가족' 처럼 수리, 사회탐구, 과학탐구가 함께 화학적 반응의 통합없이 물리적 혼합으로 존재하고 있을 뿐이다. 또한 정신능력이나 내용도 상당한 수준 이질적인 것이 섞여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므로 만약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발전된 학력고사' 로 전환한다면 영역 결정에서도 대담한 변신이 있어야 할 것이다.

3. 內申制度

대학 입학제도의 전형기준의 하나로 내신제도를 도입한 것은 우리나라가 처한 독특한 사회적 여건, 교육적 여건(예컨대 과열 과외수업의 폐단, 고등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 요구 등) 때문이라는 사회적 공감대는 이미 형성되어 있다고 보여진다. 이것은 우리나라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제도이기도 하다.

그동안 내신제도에 대해서는 각계각층에서 찬반, 호응과 비판이 엇갈리는 양극화 현상을 보여 왔다. 이 제도는 단지 학생의 고교 교육과정 성취도를 대학 입학 전형 기준의 일부분으로 반영한다는 단순한 차원을 넘어서 사회 이념과 철학, 심지어는 이데올로기의 차원에까지 관련되는 문제로 부각될 개연성이 있는 문제이다. 내신제도는 그것을 각 대학이 입학 전형의 중요한 한가지 정보원으로 이용한다는 입시제도의 구조 속에서 보면 계속 유지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본다.

다만 현행 내신 성적의 산출 방법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은 최대한 보완, 수정하는 방향에서 재검토되어야 할 필요는 강력하다. 예컨대 내신 등급의 조정, 학과 점수의 총점과 내신 등급의 불일치 현상 등은 좀더 심층적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지역간·학교간의 격차가 있기 때문에 내신성적제도는 불합리하다는 견해는 내신제도 자체가 상정하고 있는 교육적 및 사회적 대전제를 부인하는 발상이며, 이는 곧 사회정의의 기본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발상이라고 할 것이다. 각 대학은 오히려 이같은 내신자료를 어떻게, 어느 정도 이용하느냐에 의해 각 대학이 원하는 자율성, 독자성, 개성을 신장시키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것으로 본다.

4. 大學別考查

대학의 학생선발권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독자성, 다양성을 신장하기 위해 도입한 대학별고사는 국가에서 과하는 대학수학능력시험과 서로 보완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고등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지원하는 방향에서 그 역할을 정립해야 한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전국의 입학지원자 전원을 假想的 대상으로 한 검사이기 때문에 어차피 비교적 넓은 범위에 걸친 일반적 학업성취 수준을 측정하기 마련이며, 또한 多衆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어차피 能率性과 經濟性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그러기 때문에 시험의 형식도 선택형, 객관형 문항으로 구성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대학별고사는 이에대한 보완적 성격을 강조하여 대학의 특정 '소계열' 혹은 특정 '학과'의 특성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학과목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합리적 판단이 전제되어야 한다. 예컨대 '물리학과'의 경우 수학, 물리가 필수적으로 요구될 것이고 '생물학과'의 경우에는 생물, 화학이 필수적으로 요구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 각 대학이 '94학년도 입시요강에 발표한 대학별고사가 학과 및 계열에 상관없이 거의 국어, 영어, 수학의 세 과목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 것은 대학의 행정 편의주의이거나 대학 利己主義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운 것이다. 국영수 위주의 이같은 대학별고사과목의 결정때문에 벌써 고등학교 교육은 국영수 중

* 1980. 7. 30 교육개혁 이후

| 종 류 | 제 도 내 용 | 시 행 결 과 |
|--|---|--|
| • 대학입학예비고사와 고등학교 내신성적 반영 병과 (1981) | • 대학별 본고사 폐지 대학입학 예비고사 성적 50% 이상과 고교 내신 성적 20% 이상 전형 (선시험) | • 무제한 지원, 성적공개 등 시행 상 문제점 대두 → 입시혼란 • 대학의 입시선발 기능미약 • 미달사태 발생, 과열 경쟁으로 탈락 |
| • 대학입학 학력고사와 고등학교 내신성적 병과 1982-1985) | • 대학입학 학력고사 성적 50% 이상과 고등학교 내신성적 30% 이상 병과 전형 • 1985학년도 고등학교 내신성적 등급간 점수차이 조정 (2.7점-2점) • 고사 과목수 1982-'83 : 14 1984 : 15 1985 : 인문:16 자연:15 (선시험) | • 대학의 입학선발 기능 미약 • 접수마감시간 혼란잔재 • 고등학교 내신성적 불만 • 체력검사 폐지 대두 |
| • 대학입학 학력고사와 고등 학교 내신성적 및 논술고사 병과 (1986) | • 대학별 논술고사 실시 (10% 범위내 성적반영) • 고등학교 내신성적 학년별 성적 반영 조정 • 기타 1985학년도와 동일 • 고사 과목수 인문 : 17 자연 : 16 (선시험) | • 논술고사 기능 미흡 • 미달사태 발생 (편중된 지원현상) • 합격 위주의 지원 (적성 무시) |
| • 대학입학 학력고사와 고교 내신성적 및 논술고사 병과 (1987) | • 대학입학 학력고사 성적 50% 이상과 고교 내신성적 40% 이상 및 논술고사 성적 10% 병과 전형 (선시험) | • 대학의 학생선발 자율권 미흡 • 눈치지원 등 접수마감 시간 혼란 • 선시험 후시험제로 인한 적성 무시 지원 |
| • 대학입학 학력고사와 고등학교 내신성적 병과 (1988) | • 선지원 후시험 • 고교 내신성적 30% 이상 의무화 • 대입학력 고사 대학별 실시 (중앙교육 평가원 출제) • 면접고사 점수화, 과목별 가중치 적용 | • 접수창구혼란 극소화 • 적성지원 • 대학의 학생선발 자율권 신장 • 예·체능계학과의 고등학교 내신 성적 반영비율 하향 조정 요망 (실기비중 상향조정) |

심으로 跛行的으로 실시되고 있다. 또한 이 세 과목을 위한 개별 및 집단과의 및 학과과의가 극심해져 가고 있는 현상은 1970년대에 '亡國病 課外'라는 사회적 지탄과 비난 때문에 '80년 7.30 교육개혁조치가 취해졌던 경험을 되새길 필요가 있을 것이다. 대학인은 자유롭고 자율적이어야 한다.

그러나 이같은 자유와 자율도 냉철한 이성에서 터한 합리적 판단에 근거할 때만이 공감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에 겸허해야 할 것이다.

5. 面接考査

현재 각 대학에서는 대단히 형식적인 면접고사를 치르고 있긴 하나,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것이 대학입학 선발에서의 사정자료로 이용되는 경우는 희귀하다. 여기에서 제안하는 면접고사는 본격적이며 본질에 충실한 면접고사를 시행함으로써 그 결과를 입학 사정의 자료로 활용하자는 데 있다. 이 면접고사는 학생이 지원하는 각 학과의 교과내용, 적성, 태도나 가치관 등을 측정·평가하는 형태로 구성하고 각 학과의 교수가 직접 면접하는 방식을 취하도록 한다. 최근 몇 년 사이에 몇 개 대학이 이같은 방법에 의한 면접고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효과를 평가하기에는 아직 이르지만 적어도 중요한 평가 자료가 된다는 데는 동의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인다. 면접고사는 그것을 학문적 성취가능성의 측정 자료로 이용한다는 뜻도 있지만, 그보다는 교육적 차원의 시각에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제도가 있음으로 해서 각 학과나 학문 분야에 지원하는 학생의 태도가 보다 진지해 질 수 있다. 또한 최근 몇 년간의 사회적·정치적 변동과 풍토의 영향 때문에 거의 下限點에 이른 대학교수의 교권 확립이라는 차원에서도 이 제도는 계속 권장되어야 한다고 본다. 기업체나 회사에 취직할 때의 취직 시험에서도 면접에 의한 판정이 대단히 중요한 사정 정보로 이용되는 데, 가장 교육적이어야 할 대학이 이 제도의 활용을 도외시 한다는 것은 교육적 책무의 유기라고 해야 할 것이다.

VI. 맺 음 말

반복해서 말하지만 대학입시 제도에 관한한 이상적 대안이라는 신화는 존재할 수 없다. 오직 있다고 하면 현실에서 발생한 충격을 얼마나 흡수할 수 있는 대안인가 하는 점이다. '94학년도의 대학입시제도에 관한 필자의 대안도 한 개의 次善의 代案일 뿐이다. 그러나 어떠한 제도이건 그 제도가 가장 가치를 두는 몇 가지 특징은 있기 마련이다. 위에서 제시한 대안은 대

學의自律性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있고, 그러면서 동시에 社會正義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이고 타당한 입시제도를 제안하고 있다. 이 점에서는 비교적 공감대가 높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학의 자유나 자율성은 이를 감당할 수 있는 경우에 주어지는 자격과 권리이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방종과 무질서의 逆機能으로 작용하여 끝내는 또 다른 새로운 규제와 타율을 자초하게 될 수도 있음을 우리 대학인 스스로가 같이 인식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教育改革審議會(1987). 教育改革綜合構想: 最終報告書(II). 교육개혁심의회.
 教育部(1991). 大學入學試驗制度 改善案.
 金宗西 외(1980). 大學入試制度研究. 선진학술제도 조사연구보고서. 문교부.
 金宗西 康宇哲 鄭元植 黃禎奎 邊昌鎭(1984). 大學入試制度研究. 문교부.
 朴道淳 張錫祐 姜武燮 辛東鎭(1989). 大學入試制度 改善方案 研究. 한국대학교육협의회.
 中央大學校 한국교육문제연구소(1991). 새 대학입시제도에 따른 대학별 본고사의 시행방안
 黃禎奎(1988). 大學教育適性試驗 개발을 위한 基礎研究. 중앙교육평가원.
 黃正규(1988). 대학입시정책: 그 이상과 현실. 大學教育, 33호, 18-23.

〈부록〉

대학입시제도의 변천

*1980. 7. 30 교육개혁 이전

| 종 류 | 제 도 내 용 | 시 행 결 과 |
|---|--|---|
| • 대학별 단독 시험제 (1945-1953) | • 대학별로 입학시험 실시 (선지원) | • 6.25 동란후 징.소집 보류 특혜부여로 대학부정입학문제 야기 |
| • 대학입학 연합고사제 (1954) | • 대학입학연합고사와 대학별 본고사 병과전형 (선시험) | • 대학입시 이중부담과 정치적 이유로 합격자 발표후 무효화, 대학별 본고사 성적만으로 선발 |
| • 대학별 단독시험제 (1956-1961) | • 고등학교 내신성적에 의한 무시험 전형과 • 대학별 본고사 및 고등학교 내신성적 병과전형 • 입학정원 10%는 무시험 전형 • 입학정원 90%는 고등학교 내신성적 30% 반영하여 전형 • 여성진학기회 확대와 군대 제대자 우대책으로 입학 정원 10% 초과 모집 허용 (선지원) | • 대학의 입학정원 초과모집으로 학사부조리 발생 |
| • 대학입학자격 국가 고사제 (1962-1963) | • 1962학년도: 국가고시만으로 전형 • 1963학년도: 국가고시와 대학본고사 병과전형 • 국가고시는 전국대학 입학 정원의 100%만 합격 (선시험) | • 학과별사정으로 입학정원 10%내의 우수한 성적합격자가 탈락한 반면, • 비인기대학 및 학과미달 사태 발생 (혼란) |
| • 대학별 단독시험제 (1964-1968) | • 대학별 입학시험 실시 (선지원) | • 대학의 학생 정원초과모집 대학간 격차심화로 질저하 • 대학을 졸업한 고학력 실업자 증가 |
| • 대학입학예비고사와 대학별 본고사병과 (1969-1980) | • 1969-1972 대학입학예비고사 합격을 대학본고사 응시 자격부여 • 1973-1980 대학입학예비고 사성적을 대학별 전형에 30% 반영 (선시험) | • 과열과의 발생 • 교권의 실추 • 빈부의 차에 의한 국민간의 위화감 조성 • 입시의 이중부담 |

〈討論〉

오지마교수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한국이 지금 대학입시 문제를 둘러싸고 매우 심각한 과제를 지니고 있고, 더구나 그것이 사회적인 장면과 대학의 자율성의 문제, 그리고 청소년의 육성이라고 할까요, 그러한 여러가지 중대하고 심각한 문제를 포함한 것으로서의 입시문제가 있다는 것을 선생님의 대단히 깊은 학문적 고찰을 배경으로 잘 들었습니다. 실은 일본에 있어서도 말입니다. 일본에 있어서도 특히 대학이라는 곳을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까 하는 문제에 관해서 의견의 대립과 앞으로의 전망·예상의 어려움, 따라서 대학의 교육개혁에 있어서 그것이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되어 있다는 것이 그 배경에 있습니다. 일본에 있어서는 대학에 대한 생각 또는 그 현실을 보았을 때, 대학을 전통적인 시각에서 발전시키고, 보다 고도한 학문 연구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개혁할 것인가 또 하나는 대학이라는 곳을 국민의 학습 수요와 필요 같은 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대학을 개혁해 나가야 할 것인가 하는 두 가지의 방향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쭙고 싶은 것은 일본에 있어서는 대학교에 관해서 이러한 두 가지 생각이 있다는 것인데, 한국에서는 대학교를 전통적인 학문 연구와 그것을 바탕으로 한 교육기관으로서 생각하고 있는지, 아니면 대학교를 대중화시켜 나감으로써 국민의 필요를 충족시키고, 동시에 학문 연구도 해 나가는 걸로 하는가 등에 관해서, 소위 대학관, 바로 대학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것이 한국에서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가 또는 선생님은 어느 관점에서 말씀하셨는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황정규교수 오지마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문제가 세 가지로 이야기되겠는데, 일본에서도 역시 입시 제도가 사회적 문제 특히 청소년의 발달·성장하고 대단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또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그래서 일본의 대학상을 정립하는 데 아마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대학상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엘리트의 엘리트시즘을 우리가 지향하느냐, 정수분자를, 과거의 우리가 중세나 근세사회에서 정수분자를 대학인으로 길렀던 그런 전통을 유지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대중 교육, 좀더 나아가서 보편화된 고등교육을 지향하느냐 하는 갈등 속에 놓여 있기는 합니다만, 저의 짐작으로는 보편화 및 대중화되어 가는 고등교육의 추세를 우리나라에서는 그것을 누구의 힘으로도 거부하기가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저희들 교육정책도, 고등교육정책 혹은 대학교육정책도 그런 전제하에서 아마 움직여야 할 것이고, 장차도 아마 그런 방향에서 입시정책 뿐만 아니라 다른 정책도 아마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 엘리트시즘은 이제는 대학원 수준의 교육, 혹은 특수한 어떤 프로그램을 통한 수준으로 전이되어 나가는 그런 시대가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 회 또 다른 선생님 계시면,

임인재교수 대학교육의 대중과의 문제가 하나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통신대학이니 개방대학이니 또는 대학내에서 대학원 설치 등은 결국 대학이 원래 가지는 교육기능, 연구기능, 지역사회의 봉사기능, 이러한 측면에서 보았을 때, 결국에 가서는 어느 하나에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기관을 고등교육기관에서는 다양화해서 또는 그 안에 프로그램을 다양화해서 그 여러 목적을 맞춰 나가는 어느 하나에 대중화교육이라든가 또는 너무 엘리트 교육이나 연구 중심이라든가 이것이 아니라 거기에 또 조화의 기관의 다양화를 통한 또는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통한 그런 조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 회 또 다른 ……

이민재교수 계속 질문해서 죄송합니다만, 일본측 참가자에 대해서 기회를 주어야 되는데, 이 입학시험 문제가 우리하고 또 관련이 있기 때문에 또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오늘 입시제도에서 제안을 해주신 황정규교수님께서 우리나라 대학입시제도의 역사적 측면 뿐만 아니라 또 측정평가의 전문가로서 뿐만 아니라 사회학적인, 또는 철학적인 측면에서 입시제도의 문제를 정말로 광범한 경지에서 조명을 해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가지 질문이 많이 있습니다만 제가 하나 갖는 질문은 어떤 것이냐 하면, 결국은 현재 이 때까지의 70년대에 들어와서 특히 80년대에 와 가지고, 뭐냐하면, 과외 과열 해소, 이 문제가 상당히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어 있어서, 요즘의 커다란 요구의 하나가 뭐냐하면은, “너는 삼수하는 자식의 부모가 되라” 하는 것이 하나의 커다란 욕이 되고 있는데요, 그 부모들의 정신적 물질적인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94년도부터 실시하는 이 제도가 정말로 과외 과열을 해소할 수 있겠는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과외 과열은 결국 해소할 수 없는 문제가 아닌가, 왜냐하면 다수에서 소수를 뽑는 경쟁 속에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갈등이 있기 마련이고 과외과열은 그같은 것이 아니냐, 다만 과거의 암기위주의 지식이라는 저, 공부하는, 학습이라는 이런 방향에서 대학수학능력고사를 통해서 보다 고차적인 정신 능력을 측정하는 이런 방향으로서의,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전환은 하지만은, 과외 과열 해소가 정말로 입시제도에 의해서 해소가 가능한가 하는 문제가 저의 커다란 질문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과외 과열을 입시제도 자체의 문제로서 이것을 해결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정말로 가능한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황정규교수 임인재선생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아마 상정하고 있는 본인의 생각이나 저나 별로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대전제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들어가야 할 커트라인은 정해져 있고, 지원하는 사람들은 많고, 자연히 거기에는 선발이라는

기능이 가해지지 않을 수 없고, 그 선발이라는 기능이 가해지는 이상 거기에는 어떤 경쟁이 있기 마련이고 그 경쟁은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질 가능성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수준에서의 과외는 없앨 수가 없습니다. 그 과외가 본질적인 교육의 본질적인 방향이라고 생각되어지는 방향으로 만약에 과외를 한다고 하면, 그런 과외는 어떤 면에서는 다소간 있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본질적인 문제와 관련이 없는, 그러한 말하자면, 참 낭비적인, 정신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낭비적인 과외가 과열되고 있다는 데 우리의 현실의 안타까움이 있지 않겠느냐, 동시에 임인재 선생님께서 질문을 하신 내용 중에 그것이 입시제도에 의해서만 해결되느냐, 저도 역시 전혀 입시제도에 의해서 해결된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입시제도는 가능한 한 그런 입시 과열 과외를 완화시키는 장치가 뭐냐라는 방향에서 아마 우리가 해답을 찾아야 되고, 그런 면에서 최선의 답은 있을 수 없고 언제든지 차선 혹은 차차선의 대답을 우리가 입시제도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니카와교수 쓰꾸바대의 다니카와라고 합니다. 질문이 두 가지 있는데요, 첫번째는 좀 대략적인 질문인데요,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 중에서 나온 문제가 국립대학교를 전제하고 있는지, 또는 사립학교의 입시제도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잘 모르겠사오니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하고요, 또 하나는 일본에서는 대점이라고 합니다만, 대학검정시험제도라고 합니까? 소위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았다 또는 중퇴한 학생이 문부성의 검정제도, 검정시험을 합격함으로써 대학입시를 치를 권리를 받을 수 있다는 제도가 전후 바로 시작되고 현재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일본에서는 고등학교의 중퇴자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 1,2년에 1만이나 2만이나 하는 학생이 대점이라는 시험을 보고 대학의 입학시험의 자격을 따는 제도가 있는데요, 한국에서는 그런 제도가 있는지를 물어보고 싶습니다.

황정규교수 첫번째 질문이지만은 저도 자료를 보았습니다. 시미즈교수님의 자료를 보았는데, 거기에는 상당히 사립과 국립의 관계가 일본에서는 묘한 변수로 입시제도라든지 내면화라든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식으로 국립대학이나 사립대학이나 하는 것에 의해서 입시제도의 내용이나 방법이 달라지는 일이 거의 없고, 단 우리 경우는 4년제 대학이나 아니며는 전문대학이나하는 것, 일본에서는 단기 대학이 되겠죠, 그 단기 대학이나 아니면 그냥 대학이나 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입시제도나 내용, 방법이 좀 달라지는 경우는 있습니다. 실제 그렇게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두번째의 경우는 제가 분명치 않아서 다시 질문을 하겠는데, 지금 대점이라고 하는 것은 고등학교 졸업 자격을 위한 검정고시를 이야기합니까? 아니면 대학입학 시험을 이 대점을 통해서 시험을 치면, 바로 대학에 입학할 수가 있는 것을 이 대점이라고 하는 것인지? 우리나라의

검정고시 비슷한 것이네요. 그 제도는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검정고시를 통해서 고등학교 자격을 따면 그 다음에 대학 입학 시험은 다른 학생과 같이 똑같이 입학시험을 칠 수가 있도록 되고 있습니다.

가도와키교수 쑤꾸바대학에서 교육사회학을 전공하고 있는 가도와키라고 합니다. 황선생님의 아주 성실한 한국의 대학입시제도에 관해서의 보고를 듣고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의 대학입시제도의 변천을 들으면서 제가 머리속에서 생각을 했던 것은 일본의 1920년대 역시 입학제도에 관한 여러 변천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대학입시 제도이지만 일본의 경우 입학시험이 극심한 사회적 문제가 된 처음의 사례를 1920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때는 소학교에서 중학교에 들어가는 입학시험이 매우 과열되었다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 때 이래 학력 시험을 한다든가 학력시험의 폐해를 고치기 위해서 내신성적을 중요시 한다든가 또는 내신성적의 폐해를 고치기 위해서 면접시험만으로 한다든가 하는 시도를 많이 되풀이하면서 70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경우 이번 1994년에서 지금까지의 여러 시행착오의 성과 위에 새로운 제도를 시작한다는 것을 들었습니다만, 저의 솔직한 감상을 말씀드리자면, 아마 이 제도의 개혁으로 현재 지니고 있는 한국의 입학시험에 관련한 여러 문제가 소멸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듣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생각하는 하나의 증거라고 할까요. 구체적인 예를 여기서 5분 정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오후에 시미즈 선생님께서 보고하시겠지만, 일본의 대학입시제도가 1979년에 공통일차시험이라는 것을 시작했다는 것을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것보다 제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그 1979년의 제도보다 10년 전의 1969년에 일본의 가나가와현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가나가와현은, 고등학교의 입학시험제도를 이번에 한국에서 대학 입시에서 1994년에서 채용하게 되었다고 하는 그 방식과 1969년에 가나가와현이 시작한 고등학교의 입시제도와 매우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이 가나가와현의 방식이라는 것은 그 겨냥한 것은, 내신성적의 비중을 현재 아마 40%이상 지금은 50%정도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내신성적을 중요시한다는 것이 1994년에서 시작되는 한국의 제도와 매우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번째입니다.

가나가와 방식의 두번째는 중학교 2학년, 바로 중학교를 졸업하는 1년전에서 소위 기초학력의 시험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 역시 미국의 SAT와 비슷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것은 1994년에 시행되는 한국의 대학시험위원회가 행하는 공통시험과 비슷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번째 기둥이 각 고등학교가 그 판단에 따라 시험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중학교를 졸업할 때의 일제 시험으로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것은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미국의 ACT에 비슷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방식으로 또 그 구체적인 방식도 이 20년간 여러가지 변천되어 왔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이런 방식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또 말씀드리다면 이 가나가와현의 경우는 그 동안 고등학교에 들어가는 학생들을 늘리기 위해서 약15년간에 100개의 고등학교를 만드는 것을 아울러 행하여 왔습니다. 따라서 시험제도를 공평하게 객관적으로, 또 중학교 단계에서의 교육을 정상화한다는 목적으로 바꾸고, 시험 방식을 바꾸고 하는 것을 한쪽으로는 행하고 또 한쪽으로는 고등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 학생의 수를 늘리는 노력도 하여 20년이 지난 것입니다. 한국의 경우 그 1994년 이후 대학의 수를 늘린다는가 하는 것이 있는지 그것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만, 가나가와 현의 경우 구체적으로 고등학교를 늘린다는 것도 포함해서 입학시험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자는 노력을 해왔습니다만, 그것은 유감스럽게도 성공을 못했다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대단히 비판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입학시험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피할 수 없지만 입학시험에는 이것이 best라는 것이 없고 어쩔 수 없이 better라는 것을 모색하는 과정이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어떤 제도를 만들었다고 해도 그 폐해를 완전히 없앤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겠지만, 단 폐해를 보다 적게 하는 노력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좀 길어졌기 때문에 결론을 서둘렀습니다만, 그것을 위해 저희 쓰꾸바대학의 교육사회학 연구실에서는 6년전부터 가나가와현의 고등학교의 제도가 어떤 의도나 목적으로 만들어지고 그 후 실제로 그 제도로 시험을 행함으로써 어떤 사회적인 여러 움직임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추적하는 조사가 현재 진행중입니다. 그 보고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마 3년 정도 뒤이겠지만, 저희들이 교육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잘 정리된 자료를 기초로해서 어떤 제도를 취했을 경우 어떤 사회적인 변화가 그 제도에 따라 일어날 것인가에 관해서 실증적으로 자료를 남긴다는 것이 그 후의 제도개혁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희망이지만 1992년도에서 새로운 제도가 시작되었을 경우 그 후의 변화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관한 연구체제같은 것을 미리 준비하면서 진행시키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소감을 말씀드리다면, 지금은 제도화가 결정되어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하겠지만, 새로운 제도를 세 가지의 기둥, 바로 공통시험, 내신성적, 대학마다의 또는 학과의 특성을 살리는 시험제도를 한다는 것이지만, 이 세 가지 방법을 joint한다고 할까요? 연동시키는 방식은 아마 연동시키는 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생각은, 말하자면 이런 방법도 있을

수 있다는 것으로 황선생님의 소감도 여쭙보고 싶습니다만, 이 세 가지를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의 내신성적으로 대학교에 입학시키는 학생을 40%, 공통시험만으로 입학시키는 학생을 30%, 그리고 대학교만이 행하는 시험으로 입학시키는 학생을 30%, 이런 식으로 각자 독자적인 방식으로 입학시키는 것, 바로 세 가지의 방식을 완전히 독립시키면서 병행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세 가지의 방식을 각각 독자적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수단으로 사용한다고 해서 그 A, B, C 세 가지의 방식으로 어떤 학생들이 들어오고 또 그 후 어떤 경력을 갖게 될 것인가, 어떤 성적을 남기게 되는가 하는 것도 자세히 그 후의 추적 조사를 하면, 지금의 폐해를 없앨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런 것에 관한 황선생님의 소감을 들을 수 있으면 합니다. 너무 길어져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황정규교수 워낙 많은 이야기를 해서 잊어버리고, 적기는 적었습니다만, 혹시 잊은 게 있으면, 가도와키선생님, 좀 용서하십시오. 뒤에서부터 대답을 해나가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일종의 joint란 말이 아마 joint combination을 시킨다는 이런 뜻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 방법도 상당히 재미있는 방식인 것 같아 보입니다. 그 말은 각 대학에서 내신 성적만으로 뽑는 학생을 한 30%정도, 본고사의 성적만으로 뽑는 학생을 한 40%정도, 장차 우리가 실시하려고 하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만으로 뽑는 학생을 한 30%정도 그렇게 100%를, 정원을 가령 100명이라 그랬을 때, 100명중의 30명을 A식으로 뽑고, 40명을 B식으로 뽑고, 30명을 C식으로 뽑고, 이런 식의 joint combination을 하는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훨씬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도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런 방식도 대학의 자율성을 살린다는 의미에서 대단히 좋은 방식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이 법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만, 허용이 될 것인지, 그런 점이 의심되고, 94년도 이미 공고가 나 가지고서 그 법에 의해서 묶여져 있는 제도로서는 내신성적 40%를, 내신성적은 어떻든 간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신성적형과 내신성적 + 대학입학고사 성적형, 또 내신성적+대학별고사 성적형, 그런 식의 combination에 의해서, 말하자면, 대학이 자율적으로 뽑을 수 있는 방식은 아마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런 아이디어는 상당히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해서 받아들일 만한 이야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보니까 최선의 방법은 없지 않느냐 결국은 better decision, better choice 이외에는 없다, 그것은 가도와키 선생님이나 저나, 저도 대학입시관계를 거의 한 20-30년동안 관계해 왔습니다만, 늘 생각하는 게 그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장을 하면서 내세울 때 그 때 보면은 그 사람은 이것이야 말로 최상의 방법이다, 이게 best다, 이 방법을 하면 세상 다 해결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꽤 많은데, 그 동안 여러 위원회에 제가 다 이 자료를 그 나름대로 정리해서 드

렸습니다만, 이 사소한 variation은 주어지지도 않은 이러한 방법이 이런 식으로 여러가지로 해보았지만, best는 없다, 역시 better이고 그 better도 여러 사람의 의견에 따라서 보는 시각에 따라서 또 이해 관계 당사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저는 아까 최선이라는 말 대신에 차차선 이런 말을 썼습니다만, 차차선에 우리가 어떤 대안을 합리적으로 모색하는 노력이 아니냐, 그래서 그 말도 역시 가도와키 선생님의 생각에 동의합니다. 그 밖의 나머지 문제는 1920년대 일본에서 국민학교에서 중학교 갈 때의 그런 형식과 비슷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런 제도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의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일본선생님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고등학교까지의 입학문제는 지금 거의 해결되어 있는 셈입니다. 지금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고등학교까지는 대중교육이 이루어졌고 그 대중교육을 받았던 사람들이 전부 다 한 학벌에 대한 어떤 기대 욕구는 다 이 만큼 다 높아져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대학에 들어오려고 하니까 거기에서 병목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가지고서 경쟁이 생기고, 경쟁이 생기다 보니까 그 선발고사를 만드는 데 이력저력 여러 가지 차선의 방법을 많이들 해 보았습니다만, 이렇게 하면 이쪽에서 불만이고 저렇게 하면 이쪽에서 불만이고, 이렇게 하면 이 문제가 터지고 저렇게 하면 저 문제가 터지고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해 왔던 것이 저희들의 입시 제도로 그런 점에서 점차 얼마 전에 신문에도 나왔습니다만은, 2000년대에 가면 대학 지원자수와 대학정원수가 거의 1대1로 된다고 하니까 그 때는 어떻든간에 대학 입학이라는 문제만 가지고 생각한다고 하면, 아마 지금과 같은 심각한 경쟁 그 때도 역시 경쟁은 있을 겁니다. 서울대학교 들어오려고 경쟁을 안하겠어요? 다 하겠죠. 그러나 지금과 같은 그런 심각한 경쟁은 줄어들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 회 될 수 있는대로 일본 손님들에게 말하기로 하겠습니다.

윤정일교수 황선생님이 답변해 주신 데 대해서 좀 보충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아까 일본에서 질문해주신 그 세 가지의 joint combination이라는 말을 쓰셨는데, 사실은 그 문제가 1985년도의 교육개혁심의회에서도 심층적으로 논의가 되었고 또 교육정책자문회에서도 심층적으로 논의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울대학교 입시제도를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 할 때, 제가 제안한 제도가 바로 그러한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논의를 많이 하고 검토를 했습니다만, 문제가 우리나라 교육법 시행령에 그것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교육법 시행령을 고쳐서 학생 선발에 대한 자율권을 각 대학에 일임을 한다, 하는 전제조건이 되어야 되고, 그와 같은 전제 조건은 대학평가 인정제도를 겸해서 같이 실시를 한다고 해서 대학에 입시 자율을 준다, 이것이 되면은 아까 일본에서 제안해주신 그러한 것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 대학 입시제도의 장기적인 방

향은 그와 같은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는 것을 제가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쓰즈키교수 쓰꾸바대학의 쓰즈키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현재의 일본의 대학입시제도의 변천입니다. 지금부터 20년 정도 전에 1971년일 것이지만, 저희들은 소화46년, 소위 4·6답신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기억이 납니다만, 이것은 중앙교육심의회에서 몇 년에 걸친 일본의 대학분쟁 후에 대학개혁을 하자는 것으로 근본적인 대학개혁의 답신이 나온 것이 소화46년, 1971년입니다. 그 때에 생각들 중의 하나로 실은 이 쓰꾸바 대학이 생긴 것입니다. 그 생각은 입학시험이라는 것은 매우 심한 것이라고 하지만은 그것은 극소한, 특정한 대학에 집중하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닌가 일본의 경우는 먼저 동경대학에 집중됩니다. 만약에 동경대학이라는 것이 두 개 있으면, 반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좀더 나아가면, 구 제국대학이나 옛날부터 유명했던 대학들을 포함해서 15개 정도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집중이 지나친 것 아닌가. 세번째에는 국립대학과 사립대학의 학비가 매우 차이가 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립대학에 들어가고 싶다고 해서 경쟁이 더 심해지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입학시험의 선발제도로 여러 가지 생각하기 전에 대학의 그러한 구조 자체를 바꿈으로써 전체의 입학시험의 격화를 완화시킬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의 동경대학을 중심으로한 방법을, 말하자면, 맨 꼭대기에 동경대학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국립대학이 하나의 순서에 따라 자라잡고 있는 것 같은 제도를 바꾸고 동경대학과 같은 대학을 네 개, 다섯 개 만들어 보면 어떨까, 그렇게 하면, 맨 첫번째의 입학시험이 완화되지 않겠는가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의 문부대신이었던 나가이 미치오라는 사람이 하나의 방안으로서 후지산형이 아니라 야쥬가타케형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야쥬가타케라는 산은 꼭대기가 몇 개 있는 것이니까 그런 식으로 頂点を 몇 개로 분산시킴으로써 입학시험이 꽤 완화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는 전전에서 있었던 15개의 유명한 대학 역시 15개가 아니라 20이나 30개로 늘리는 형태로 바꾸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15개 대학 외의 대학을 15개 대학 수준으로 이끌면 되는 것이니까 그런 방식으로 바꿔 말하면, 대학의 질을 다양화 시키고 내용도 충분한 것으로 만듦으로써 입학시험의 경쟁을 분산시키는 방향으로 개혁하자는 것이 4·6답신의 기본적인 취지입니다. 쓰꾸바대학은 그런 뜻에서는 동경대학이나 교토대학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대학, 야쥬가타케의 하나로서 쓰꾸바 대학을 만들자는 것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을 저는 그 당시 매우 기대하고 있었습니다만, 한국의 입시제도 개혁의 경우 대학 자체를 후지산형에서 야쥬가타케형으로 바꾸자, 또 국립과 사립의 학비 등의 차이를 적게 하자 등, 이런 일은 다 정치적 문제이지만, 그러한 방식으로 많이 수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입시제도의 방법을 생각해 봤자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 좋은 게 있으면, 다른 데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교육정책적인 노력으로 바꿀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으로서 일본에서는 그 당시 많이 기대를 받던 것이었습니다만, 한국에서는 이러한 생각 특히 한국의 대학교의 꼭대기에 있는 서울대학교 선생님들께 이런 내용을 여쭙 보는 것은 곤란하기도 하지만은 그런 점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 보고 싶습니다.

황정규교수 이젠 제가 논문 발표한 범위를 굉장히 벗어난 이야기가 되어서 답변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일본의 경우 여러 개의 후지산을 만들자는 것이 성공하셨는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여기서 지금 알고 있는 일본도 여전히 큰 후지산 하나하고 밑에 몇 개의 그 다음 산들이 있지 않느냐, 그런데 가령 동경대학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 유명한 대학들이 비슷한 수준에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질적으로 비슷한 수준으로 상향 표준화 또는 상향 조정을 한다 그러는데 우리나라의 교육부 당국자나 더 이상 올라가서 역대 대통령마다 다 그런 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대학의 질이 다 높아져서 다 서울대학과 같은 비슷한 수준의 대학으로 되기를,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전형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되었는지 잘 안 됩니다. 안 되고 오직 유일하게 서울대학교만 큰 후지산처럼 하나 있고 그 다음의 대학이 있는데, 그래서 나는 서울대학이 상당히 중요한 사회적 교육적 책무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 상당히 심각한 어떤 정책을 결정하든지 간에 서울대학교가 상당히 신중해야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마이라든지 독단이라든지 이기주의라든지 그런 말하자면 틀에서 벗어난 대단히 신중한 합리성을 가지고서 결정해야 될 텐데, 잘 아시다시피 서울대학교의 모든 결정들이 또 그렇게 안 되고 제가 보기에는 대단히 오만하고 대단히 독선적이고 그리고 다른 것을 쳐다보지 않는, 말하자면 그런 결정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큰 후지산은 이런 식으로 따라 움직이면, 일본도 아마 대개 그러리라고 짐작하지만, 우리보다도 더 다양성이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서울대학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대학이 사립도 공립도 할 것없이 전부 따라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모든 대학이 서울대학과 같은 백화점식, 특색 없는 큰 대학이 되는 것을, 말하자면, 이상으로 생각하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 대학의 발전 방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 나름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질 좋은 대학은 자라나지 못하는, 말하자면 전체 사회 풍토가 그렇고 또 대학인들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색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첫번째의 대답입니다.

두번째 완전한 해결책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대학 정책 속에서 생각해야 해결책을 찾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 말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입시제도 하나만 가지고서 되는 일도 아

니고, 그렇다고 고등교육 관계의 혹은 대학교육정책 전체를 가지고서도 이 문제는 해결되리라, 되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것은 대학생들이 대학을 나가고 난 다음에 job market에서 그 졸업생을 무엇을 보고서 어떤 질을 보고서 채용을 하느냐는 job market에서의 selection mechanism, 또는 선택 mechanism를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과 같고 또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job market에서 계속해서 서울대학이나 고려대학이나 연세대학이나 하는 소위 학벌주의, 여기도 경영학과 나왔느냐 경제학과 나왔느냐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 무슨 다른 과 나왔느냐 라고 하는 그것을 찾고 앉아 있는 이상 그렇게 되면 될수록 이 문제의 해결은 거의 불가능하리라고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는 대학입시정책에 의해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전 사회가 일종의 비장한 태세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한 저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는 그렇게 쉽게 해결되지 않으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